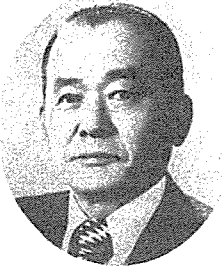


“새技術時代의 主役的



閔寬植 會長

希望의 壬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여러분의 所望이 成就되시기를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금년은 우리의 目標인 80年代 福祉國家 建設을 위한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初年度로서 매우 뜻깊은 해라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政府에서는 第1次 技術振興擴大會議을 개최하여 汎國家的 技術 드라이브시대의 새로운 政策意志를 鞏固히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實踐計劃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科學技術振興의 劃期的인 轉機를 이루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國內外的인 많은 難題와 직면하면서도 繁榮과 成長을 지향하는 굳은 결의와 슬기로 안정속에서 발전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國際的인 趨勢로서 점차 증대되어가는 資源民族主義와 技術保護主義의 深化는 우리의 持續的 成長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懸案問題라 하겠습니다.

우리 科學技術人은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그동안 創造와 技術革新으로 國家發展에 부단히 盡力하여 왔습니다.

또한 나라의 科學技術水準은 国力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科學技術時代를 收容 打開하기 위한 방안으로 80年代 科學技術政策方向을 비롯한 國家研究課題를 導出하여 제시하므로써 國家政策樹立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舍心된 努力은 科學技術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提高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科學技術의 先進化로 國家發展의 第2段階 跳躍을 구현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자부하는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百萬科學技術人은 이 새로운 科學技術時代의 主役으로서 自負心을 갖고 國家的 要請에 부응할수 있는 각오와 자세확립은 물론 敝知

使命感과 自負心가져야”

를 모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總力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科学技術人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뿐만아니라 國家百年大計를 위해서는 기필코 이룩해야할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聯合會는 이 새로운 科学技術時代를 능동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科学技術의 振興暢達을 위한 國家施策에 바탕을 둔 基本事業과 繼續事業을 質과 量의인 面에서 더욱 발전시키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國民生活 科学化運動을 繼續的으로 主導하고 學會의 學術活動 支援事業을 보다 活性化시키는 한편 學術發展에 밑거름이 되는 우수한 學術論文의 表彰制度를 신설하여 學術活動을 積極 獎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韓美修交 1百周年의 歷史的 意義를 살려 종래와는 달리 春季·夏季·秋季로 나누어 워샷과 심포지움 등으로 특색과 실효성을 살려 더욱 內實을 기하는 學術行事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今年度 事業計劃을 成功的으로 수행하여 效果를 擧揚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물론 政府當局과 科學技術 關聯機關의 聲援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80年代의 民主福祉國家建設에 우리 百萬科學技術人의 굳은 使命感과 努力이 그 어느해보다도 크게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會員여러분과 家庭에 幸運이 같이 하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2년 1월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 寬 植